



謹賀新年



관음진신 성주처 동해 낙산 일출.

종조 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행사 다양

불교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맞는 올해 종조탄신기념대법회와 종조유필원고 발간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기념예술제와 학술세미나 등 원정 대성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창종 35주년 기념사업은 사경 대회, 독경 및 진언염송 경연대회 등 종단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총지종은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포교 활성화를 기하고 종단 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증후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총지종은 올해 종조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오는 1월 29일 종조 탄신일에 맞춰 종조탄



지난 2004년 종조전 개관 당시 모습.

신기념대법회가 봉행하는 것을 필두로 종조유품전 및 사진전 개최, 종조 유고집 〈유마경〉 발간, 종조 관련 학술 세미나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및 테잎 등을 제작 배포하여 명상이나 요가 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 개발에 접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종조탄신기념 예술

제, 합창제 또는 전국친불가경연대회 등을 마련, 대중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창종 35주년 기념사업은 주로 종단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종단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 취유비라밀다심경, 등 경전사경대회를 전국의 각 교구별로 개최하고, 경전독송 및 진언염송 경연대회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 종조유품화보집 제작과 종조 유필원고 축지교전(가칭) 발간 등이 계획되어 있다.

통리원 사무국장 법경정사는 “이번 사업은 종조님의 유지를 계승 발전함과 동시에 종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포교의 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 달의 종조법설

화(禍)와 복(福)이 다 모두 인연에 있는 것이고, 친소(親疎)도 또한 인연에 있는 것이다. 복(福)도 홀로는 안되는 것이고 화(禍)도 홀로는 안되는 까닭이다. 성인 것이 도리어 친해지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볼 때 모두가 연을 짓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육행(六行)이 다 이에 있는 것이다. 대업(大業)이 성취되는 것도 다 이에 있는 것이고, 열반의 저 언덕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불교총지종 총지사는 구립 12월 24일 서원당에서 창교절법회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창교절 유시문에서 “수행과 교화가 상보적인 관계속에서 발전하여 종단내에 확고히 자리잡을 때 우리 종단의 발전도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며 “수행과 교화가 보다

철저하고 다양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구와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정예하는 또 “종조님께서는 창종 이래로 늘 보살도를 강조해 왔다”며 “창교절을 맞아 이웃의 고난을 덜어주는 자비행 실천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대중불사 법요와 유시문 낭독, 동참불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회 후엔 창교절 기념케이 절단과 육놀이, 어린이 자선학교 축하행사 등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식후 행사를 주관한 신정회 김은숙 회장은 “조출하지만 원정 대종사님의 창교정신과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신정회 일동은 앞으로도 종단발전에 헌신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교도 여러분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승단은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종령 효강
중앙종의회의장 원 송
법장원장 법공사 감원장 지성
교육원장 화령
서울경인 교구장 연등원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총지종 불단

중앙에 읊마니반마흘 본존, 오른쪽 태장계 만다라는 중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며 생명 성장과 탄생을 의미한다. 왼쪽 금강계 만다라는 이흡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 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다.



불교총지종

사 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해년 한 해의 태동을 알리는 밝은 태양,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임울했던 지난 과거의 추억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나날만 가슴속에 기억되었으면 한다.

지난 병술년 한 해 동안 종단은 종단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 하였다.

이러한 용맹정진의 원력에 의해 이제 종단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효강 종령예하의 법력과 영도력에 힘입어 종단은 새로운 기강을 확립하고, 승단은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불도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교도들은 화합 단결된 모습으로 삼보를 공경하고 참다운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 해가 종단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정해년 한 해는 반석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종단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회방편 마련, 불교의 생활화와 실천화, 교도들을 위한 복지구현, 불사의식 개편, 불단장엄 등 다양한 안건을 연구하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지난 추계강공회에 불사의식 개편, 승직법 개정안등의 개혁안들로 나타났다.

올 한 해에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개혁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일선사원에 적용하여 징, 단점과 판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종단 중흥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교회방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단중흥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이다.

상대방을 인정,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중흥을 위한 중, 장기적 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일심을 모아야 한다.

올해는 모든 이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데에 해마다 복받을 일구기 위해서는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일신 단결해야 한다.

종단중흥의 꽃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단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고, 진언밀법의 삼밀관행 수행법으로 자비심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이들이 해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굳복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 수행철학을 확립하여 용맹정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종단의 창종주 원정 대성사님이 탄생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

원정 대성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종단적으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불심을 고취시키고, 교도들은 원정 대성사님 창종 정신을 되살려 교회의 불길을 다시 피워야 한다.

인사발령

불교총지종은 지난 12월 20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시령장을 수여했다.

정각사 법공(이용원) 정사



성화사 근무 및 주교를 면함. 정각사 근무 및 주교를 명함.

정각사 공덕성(이진악) 전수



성화사 근무를 면함. 정각사 근무를 명함.

성화사 지광(김기홍) 정사



건화사 근무 및 주교를 면함. 성화사 근무 및 주교를 명함.

성화사 수십정(고춘철) 전수



건화사 근무를 면함. 성화사 근무를 명함.

건화사 법성(김종학) 정사



정각사 근무 및 주교를 면함. 건화사 근무 및 주교를 명함.

건화사 정일혜(신숙명) 전수



정각사 근무를 면함. 건화사 근무를 명함.

법황사 승원(공이영) 정사



정각사 근무를 면함. 법황사 근무 및 주교를 명함.

법황사 묵원화(김지정) 전수



정각사 근무를 면함. 법황사 근무를 명함.

* 기로스승 발령(12월 30일자)*



기로스승
시각화(김일선) 전수



기로스승
법수원(정종순) 전수



기로스승
해정(정봉락) 정사

정각사 도현(박현수) 정사



총지사 근무를 면함. 정각사 근무를 명함.

총지사 법일(윤승호) 정사



총지사 근무를 명함.



총지사 근무를 명함.

신규스승

불교총지종은 지난 12월 15일 자로 신규스승 교육증강 및 법의 금가사 수여식을 봉행했다.

신규스승 명단

도현(박현수) 정사
법일(윤승호) 정사
서령(오세길) 정사
자인행(조윤희) 전수
자행정(신다자) 전수

혜정사 서령(오세길) 정사



혜정사 근무를 명함.

- ①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 100주기 법회가 1월 29일 전국사원에서 봉행됩니다.
 ② 새해 월초불공이 1월 8일부터 일주일간 봉행됩니다.
 ③ 서울경인교구가 선재동지원에 후원금 100만원을, 밀인사가 쌀 3가마, 간식류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나 모임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청앞과 청계천 광장에는 밤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하철역에 서 있었다.

이때 무심코 들리는 방송.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순간 내 머리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지하철이 도착해서 허둥지둥 올라탔다. 지하철 안은 여전히 붐비고 있었다. 다행히 앞에 앉은 사람이 다음 역에서 내려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다. 오늘 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남편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서 행복했었노라”고, 자녀들에게 “엄마는 너희들을 많이

많이 사랑했었노라”고, 혈제자매들에게 “나와 혈제자매가 되어 주어서 긴 인생여정이 든든하고 힘들지 않았다”고, 친구들에게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어서 고마웠다”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 말하고 싶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 세상은 참 공평하다. 다 똑같이 한 살씩 나누어 준다. 나이 한 살씩 더 먹으면서 허니 우리는 나이값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값을 했다면 어쭙잖은 어린 나이에 대학을 진학한 어느 천재 어린이도 없었을 것이고, 오십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

부를 시작해 성공한 어느 어른의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다.

숫자에 불과 하다고 말하는 나이에 인생을 둑고 놓고 싶지 않다. 나이를 초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어릴때를 제외하고 나이 듦에 대해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아파트 화단 한쪽 의자에 앉아 초점없

긴 세월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까지 잘 살아온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나이 들면서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고 시야도 달라지고 생각도 깊어진다. 나이든다는 것은 채워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낙관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던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조그만 일에도 감동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된다. 나이 들면서 소중한 친구도 갖게 되고, 나이 들어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는 축복이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새해에는 인생을 좀 더 넓게, 깊이 있게, 가치 있게 살아 보자.

- 박묘정(총지사 교도)

“세상 모든 이에 감사”

는 시선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해서 한 걸음조차 떼어 놓기 힘들어 하는 노인들을 보며 나이 든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물론 젊은은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같은 것이지만 나이 든다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6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부처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개천사 김동근 12. 14 10,000	만보사 승효제 12. 5 10,000	법천사 시 정 12. 27 10,000	수인사 김봉기 11. 29 10,000	정각사 박말연 12. 26 5,000
개천사 한영란 12. 18 1,000,000	만보사 민순분 12. 19 20,000	법천사 원만원 12. 27 10,000	실보사 윤영선 12. 5 10,000	정각사 박춘희 12. 27 10,000
개천사 이희원 12. 26 10,000	만보사 지 성 12. 20 10,000	법황사 정해심 12. 1 100,000	실보사 이순우 12. 6 5,000	정심사 박우란 12. 11 20,000
개천사 장진식 12. 26 20,000	만보사 승효제 12. 20 10,000	벽룡사 원 당 12. 11 10,000	실보사 윤영선 12. 11 10,000	정심사 오윤보 12. 11 5,000
개천사 무명씨 12. 27 5,000	밀인사 이연수 11. 28 10,000	벽룡사 묵심해 12. 11 10,000	실보사 이순우 12. 14 5,000	정심사 권성수 12. 22 20,000
관성사 이혜원 11. 30 5,000	밀인사 무명씨 11. 29 10,000	벽룡사 이재갑 12. 11 10,000	실보사 이수임 12. 19 5,000	지인사 연등원 11. 30 10,000
관성사 정계복 12. 27 10,000	밀인사 정정희 12. 5 5,000	벽룡사 이봉희 12. 13 10,000	실지사 조원호 12. 1 3,000	진관사 11. 30 10,000
관성사 해정 12. 27 10,000	밀인사 신대식 12. 19 5,000	벽룡사 오미순 12. 21 5,000	실지사 송우섭 12. 4 5,000	진관사 12. 13 10,000
기로원 상지화 12. 27 10,000	밀인사 이혜성 12. 19 5,000	벽룡사 이희숙 12. 27 10,000	실지사 이화수 12. 14 7,000	총지

풍경소리

날마다 좋은 날



전작 | 고암 정병래

나의 가치는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행복하게 해 줄아 할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다.
직장동료보다 더 소중한 고객은 가족이며 그보다 더 소중한 최고의 고객은 바로 나 자신이다.
삶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목표는 없다.
자신의 삶을 경영할 줄 아는 위대한 CEO는 지혜인이다.

- 손기원(지혜경영연구소장)

분별



문화 / 남궁산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 무문선사

진정한 지혜인



문화 / 남궁산

물감을 허공에 칠한들 허공이 물들 것이며
칼로 물을 끊은들 물이 끊어지라.
사함의 마음이 물과 허공 같다면
어떤 물건을 대한들 좋고 싫음이 있겠는가?

-작자 미상의 선사

이달의 명상

'내 나이 육십에 산으로 들어와 암자 터를 잡았다. 암자를 다 짓고 나서 요양을 하고 지내면서, 그렇다고 세상살이를 지나치게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다. 암자 서쪽 아래위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이름을 따서 암자 이름을 지었는데, 아가위란 맛이 좋다고 이름난 과일도 아니고 배나 밤에 비하면 부끄럽게 생겼다. 배는 그 시원한 맛 때문에 칼에 베어지고 밤은 그 단맛 때문에 입에 씹히게 되니, 설혹 배와 밤에게 식성을 부여해서 그들 스스로 쓸모없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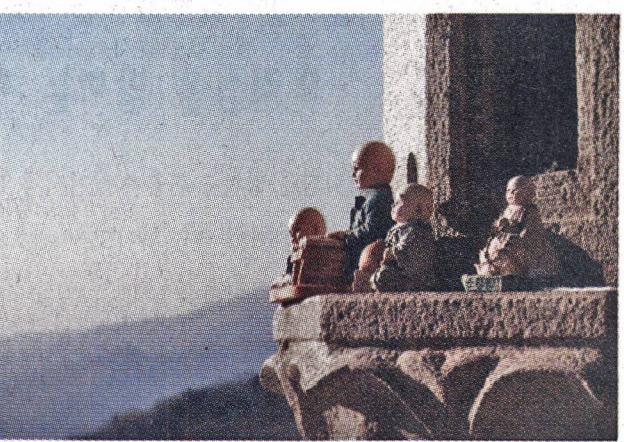
저 아가위는 돌배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

어서 비록 향기는 있어도 맛이 없다. 억지로 씹으려 해도 향기로는 배를 채울 수 없고 맛은 입을 상쾌하게 할 수 없으니, 삼척동자라도 이것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렁주렁 가지에 매달려 스스로 만족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 사람은 아는 것 때문에 자기 뼈를 고단하게 하고 아가위는 끊은맛 때문에 자기 몸이 편안하니, 암과 끊은맛 중에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나는 암이 적기 때문에 아가위와 이웃이 되었다.' ...

-중국 유엄(有嚴)선사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천수경면 제 11화 ~

계란들아 안녕!
싸우지 말고 잘 살다가 닦 되거라.
자아... 많은 것을 알았죠?
이제 또 다른 중생계를 여행해 볼까요.

"천수경"의 원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경" 인데 부르기 쉽게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르지요.

이름이 정말 같다.
너 같은 애들은 외우지도 못하겠어.
뭐, 뭐야!

이곳에 내려볼까요?
에고! 순 모래와 자갈밭이네.

아무리 허허벌판이라도 유심히 들여다 보면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답니다.
오~! 저기...
에? 저건 쇠똥구리잖아...
에이~ 더러운 녀석.

저 쇠똥구리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에이... 말도 안돼요.

허허허...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불성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데 저 쇠똥구리도 능동적인 자기삶을 꾸려나가려고 저렇게 손발이 많은지 누가 알까?

관자재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뜻이며 천수천안이란 관세음보살님의 중생들을 측은히 여겨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보살펴 주려면 손발이 많아야겠지요?
한끼밖에 많은 일을...

정말 하찮은 곤충 한 마리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군요.

불자들이 각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불·보살님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인 불·보살님들의 자세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경 이란 넓고 크고 원만하여 걸림이 없는 천수경의 주인공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을 담고 있는 대다라니경 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느니!
난관 만세~ 넘었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정진하는 쇠똥구리의 정신을 본 받읍시다.

운명인지 원지 다 비켜라!

정수일홈피 - <http://home.paran.com/octagonp>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사령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회원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한국불교미술 ⑥

한국의 석탑

I. 탑의 정의

탑이란 말은 원래 탑파인데 이를 약하여 보통 탑이라고 부른다. 또한 부처님과 관련시켜 불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탑파의 어원은 고대 인도어인 범어의 스투파(stupa)와 팔리어의 츠파(thupa)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인도 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로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대표적인 단어가 탑파인 것이다. 결국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자 스투파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뜻보다는 음을 빌려 탑파라 한 것이다. 즉 스투파는 졸도파, 도파, 소도파 등이라 쓰였고 '축파'는 유파, 두파, 탑파, 탑이라 쓰였던 것이다. 스투파의 의미로 보아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방분, 원총, 고현처라 부른다.

이 '스투파'라는 말은 철학서인 베다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베다는 네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들 책 중 가장 오래된 리그베다는 기원전 1,500 ~ 1,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스투파'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서기전 15세기경 석가모니 이전부터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스투파'라는 말은 '흔의 퇴적' 응고, 응집, 건립, 적중과 같은 의미이고, '스투파'는 묘(墓)의 뜻을 갖는 영어의 툴브(tomb)와 관계가 있는 말로 아소카(Asoka)왕의 비문에도 츠브(thub)라고 되어 있다. 또한 불교대사전에서는 부다(Buddha)의 한자식 표현인, 부도, 포도, 불도 역시 탑이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스리랑카에서는 사리봉안의 장소로서 탑을 다가바(Dagaba)라고 부르며, 미얀마에서는 영어와 같이 파고다(Pagoda)라고 부른다.

이 말은 포르투갈인들이 만든 말로 알려져 있는데 포르투갈어 '파고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5세기 이후 신대륙 발견을 위하여 동양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던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독특한 건축물인 탑을 보고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지금도 서방인들은 동양의 탑을 칭할 때 '파고다'라고 부른다. 그러나 흔히 가늘고 긴 고층건물을 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이는 타워(tower)이지 '파고다'는 아닌 것이다.

II. 한국석탑의 발생

한국의 사원형 석탑은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즉 불교도입 시기와 같은 시기인가? 그 재료는 무엇인가? 그 형태는 어떠하였는가? 또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증적인 사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으로 미루어 추정할 뿐이다.

한국의 석탑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고 가람성이 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시의 당탑가람이 대부분 목조였던 관계로



유사 등에 그 당시의 탑상을 설화형식으로 전할 뿐이다. 이러한 전설적인 기록으로서는 요동성육왕탑에 대한 기록을 비롯하여 평양 대보산하의 고려 영탑사와 금관성 파사석탑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요동성육왕탑의 전래 사실은 곧 방유토탑삼중, 상여복부, 기목탑칠중 등에 의하여 3층의 토탑과 7층의 목조탑이 존재하였고 이 가운데 토탑은 위에 솔, 즉 밭을 덮은 것 같다 하여 바로 인도탑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영역에서 다각다층석탑이 건립되는데 영탑사 8각 7층 석탑이 이들 석탑의 조형이 아닌가 짐작된다.

III. 석탑의 종류

대당서역기에 따르면 서역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여러 나라에 이탑(泥塔), 전탑(磚塔), 석탑(石塔), 목탑(木塔), 칠보탑(七寶塔), 금동탑(金銅塔)

이 있으며 경전에는 이 밖에도 분탑, 우분탑, 사탑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서 탑파의 재료에 대한 제한은 없고 어떠한 재료에 의하든지 복덕은 같으며 더욱이 목조탑의 비영구성과 전재의 비생산적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영구적이며 보다 능률적인 석재로 조립함이 당연하였다 것이다.

삼신신삼은 《조선의 석탑》이란 그의 저술에서 한국탑을 구분함에 있어 디종타입의 형태라하여 일반형, 일반변형형, 팔각형, 원형, 유탑신좌형, 모전형, 사사자형, 점판암타, 마애석탑, 특수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타파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재료에 의한 분류, 형태에 의한 분류, 발전양식에 의한 분류, 시대구분에 의한 분류, 형식과 지역성에 의한 분류, 평면형태에 의한 분류, 기단형식에 의한 분류, 충수에 의한 분류 등이 가능하다.

IV. 석탑의 시원양식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간은 목탑의 건립시기로, 오랜 목탑의 조성에서 쌓인 기술과 전통의 연마가 드러이는 석탑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목탑은 삼국이 모두 중국의 고루형 목탑양식의 조형을 모방하여 누각형식의 다층으로 건립하였을 것이며, 방형 혹은 다각의 평면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남아 있는 평양 청암리사지에서 8각전의 8각탑파와 대동 상오리사지에서 8각당의 기단부가 조사되어 고구려 목탑지로 추정된 바 있다. 백제의 유구로는 부여 군수리사지와 익산 제석사지에서 방형의 목탑 기단부가 확인되었다. 신라의 유지는 경주 황룡사지에 거대한 방형 9층목탑지, 사천왕사지의 목탑지, 망덕사지의 목탑지, 보문사지의 목탑지, 기림사의 목탑지가 남아 있다.

목탑의 유행에 이어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백제에서 석탑이 건조되었는데, 그 양식은 당시에 유행하던 목탑을 본뜬 것이었다. 석탑이 백제에서 비롯된 대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건축이 발달하였던 나라로 이미 '사탑십자'의 나라로서 널리 알려졌으며, 또 신라의 황룡사구층목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아비지가 초빙되어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일본의 초기사원 창립에 백제의 외전사 등이 건너가 공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미륵사지석탑은 현재까지 원위치에 남아 있는데 이 탑을 한국석탑의 시원으로 보는 이유는 그 양식이 목탑과 가장 흡사하다는 점에 있다. 이 탑은 당시 유행되던 목탑의 각 부 양식을 목재 대신 석재로 비주어 충실히 구현한 것으로, 특히 기단부는 목탑에서와 같이 낮고 작다. 또 탑신부의 중심에 거대한 방형석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석탑의 칠주로서 이러한 방주가 지탱하고 있는 것도 목탑의 형식과 같은 점이다. 각 면에는 엔타시스(Entasis)를 표시한 장방형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전통 목조건축에서만 보이는 평방과 칭방을 가설하였으며, 다시 요당양식을 모방한 3단의 받침이 있어 옥개석을 받고 있다. 이것 또한 목조건물의 가구를 본받고 있는 것이다. 즉, 목조가구의 세부까지도 석재로 충실히 모방한 한국 최초의 석탑으로서, 백제에서 석탑이 발생하는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지동의보감



바람직한 수면 습관

불면증은 인생동안 한 두번은 누구나 고생한 과거력을 갖고 있는 흔한 문제이다.

충분한 수면은 종추신경계의 활성화, 에너지의 저장, 체온조절, 감각이 과부하된 뇌로부터 기억의 '삭제기능' 등이 있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생체 리듬이다.

따라서 수면의 불충분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일상생활에서 아래의 습관을 잘 익히면 건강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1. 아침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잠이 오지 않는 데도 잠자리에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것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러나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운동을 삼가한다. 운동 직후에는 심신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4. 잠들기 6시간 이전에는 커피, 담배,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5. 잠들기 직전에 너무 시장하면 잠들기 어려워므로 가벼운 균형질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6.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컵 마신다. 우유에는 천연 수면 유도제인 트립토펜이 포함되어 있다.
7. 수면유도 목적으로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 술의 효과에 의해 빨리 잠들 수는 있으나, 두세 시간 후부터는 술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숙면이 저해된다.
8.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다.
9.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한다.
10. 침실의 소음을 줄인다.
11. 침실은 수면과 부부관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취침 전에 복식호흡을 수행한다.
13. 걱정거리가 자꾸 떠올라 수면을 방해하면 차라리 그 해결방안을 차분히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는 당분간 잊어버린다.
14. 금방 잠들 수 없을 때 자리에 누워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불면에 대한 걱정을 초래하여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 일어나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와서 눕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죽비소리 보리심을 발하는 다섯가지

선남자야! 보리심을 발하는 데는 다섯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착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냄을 끓는 것이고,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양민심(憐愍心)을 일으키는 것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다.

(우바새계경)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벽룡사

주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889-0211

시법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밀인사

주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762-1412

정심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관성사

주교 :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법천사

주교 :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실지사

주교 :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2)983-1492

지인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지사

주교 : 전수 선도원
정사 법 일
전수 자행정
☎ (02)552-108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 · 경인교구 신정회

원승 정사
종양종의회 의장

2007년 정해년 새해아침의 찬란한 태양이 사방세계에 밝은 빛을 발하였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단과 교도보살님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해년은 돼지의 해입니다. 다산(多産)을 의미하는 해인만큼 행복과 지혜가 많이 일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과 지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좀더 부드럽게 대했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자연 사라지게

희심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과 진심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체众生을 일으켜서 항상 즐겁도록 하는 것입니다.

풀은 일이 없고 오직 겹양과 부드러움이 있으며, 일체众生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즐겁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고 좋은 불법(佛法)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 훔.



행복과 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길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수행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심과 원망심을 얹지로 없애려 하면 없어지지 않고 더욱 솟구치기만 합니다. 반대로 환

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은 악한 마음으로 못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화내거나 원한을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쁜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자타 모두가 성불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

병술년이 지나고 정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만 새로운 마음가짐도 중요하나 오늘 새해 아침에는 오히려 지난 한 해를 들이켜 보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긴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잘 하기란 쉽지

가 않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시작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침이 좋지 않으면 그 시작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시작하여도 작심삼일인 것은 우리 중생들

연동원 전수
서울경인 교구장

유종의 미를 살려 새로운 각오

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다짐할 것은 새로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해에 못다한 것을 올해에는 완성하고, 지난 해에 부족하고 잘못되었던 부분을 더욱 다듬고 완성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한 시작이라고 각

오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초발심시번 정각이라 하였습니다. 처음 발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바른 깨달음을 얻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때에 우리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불공을 열심히 하시고 한 해의 마음공부를 새해불공할 때와 같이 지속한다면 금년 정해년은

넉넉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자력이 함께 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복(福)과 행운을 선사하는 정해년 떠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해년 한 해에는 고통과 괴로움, 시기와 질투, 불운을 해탈하여 행복과 웃음, 화합과 단결, 삶의 여유로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각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되시기를 자심으로 서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수행의 목표도 자비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비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은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변환경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일 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차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여유로움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대원 정사
부산·경남 교구장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세상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들이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아름답듯이 마음속에 잡념만 없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은 인생이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 찾아온 망상과 집착, 아집의 굴레를 벗어나 자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부는 갈대요, 한 순간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이요, 순간 반짝이는 번개불입니다.

찰나의 순간, 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마음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기막힘이 찾아온 번뇌의 허망된 망념에 자신의 마음자리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는 수행을 통해 해탈의 기쁨, 행복의 열반을 즐득해야 합니다.

정해년 한 해동안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비한 마음, 참나를 찾는 마음 수행으로 행복한 날이 영속되시기를 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법황사

주교: 정사 승원

전수 묘원화

☎ (062)676-0744

혜정사

주교: 정사 서령

전수 혜원정

☎ (043)256-3813

만보사

주교: 정사 지성

전수 승효제

☎ (042)255-7919

백월사

주교: 정사 법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홍국사

주교: 전수 밀공정

☎ (063)224-4358

불교설화 <6>

온양온천과 관세음보살

아득한 옛날 충청도 땅에 아주 가난한 절름발이 노파가 삼대독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려운 살림에 불편한 봄을 이끌고도 노파는 아들 키우는 데 온 정성을 다했다.

어느덧 아들이 훈기를 맞게 되니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노파는 매파를 놓아 사방팔방으로 훈처를 구했으나 자리마다 고개를 저었다. 가문도 볼 것이 없고, 살림도 넉넉치 못한 데다 시어머니마저 절름발이이니 누구도 선뜻 딸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노파는 절름거리는 자신의 다리를 원망하면서도 실망치 않았다.

이러한 노파를 측은히 생각한 중매쟁이는 좀 모자라는 처녀라도 그냥 며느리로 맞자고 다짐을 받고는 아랫마을 김첨지 집으로 달려갔다. 그 집에는 코찡찡이 딸이 있었기에 말만 꺼내면 성사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김첨지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그런 소리 입밖에 두번 다시 내지도 마슈. 원 아무리 사윗감이 없기로서니 절름발이 훌시어머니 집에 딸자식 보내겠소?』

『원 영감님두, 그 노인이 다리 하나 저는 게 흠이지 아들이야 인물 좋고 부지런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있습니까?』

『아 듣기 싫다는데두요.』

김첨지는 벌컥 소리를 질렀다.

『흥! 까마귀똥도 약에 쓰려니까 칠산바다에 찍 한마더니 코찡찡이 꿀에 끌값하네.』

중매쟁이는 이렇게 퍼부으면서 이번엔 황영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팔을 제대로 못 쓰는 그 집 딸에게는 노파의 아들이 오히려 과분할 것 같아 자신만만하게 달려갔다.

『가만있자! 내 딸과 정흔을 하자구요?』

한동안 눈을 깜빡이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황영감은 이윽고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왜 너무 황송해서 그러시요?』

『그게 아니구요. 팔을 못 쓰는 내 딸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엔 반편들만 모였다고 남들이 얼마나 놀리겠소?』

『원, 그렇게 따지다가 따님 환갑 맞겠소, 환갑.』

이제 더이상 알아볼 곳이 없다는 중매쟁이의 말을 들은 노파는 서글프기 짙어 없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하고 불편한 다리를 끌고 산사를 찾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나님인 우리 아들 짜를 정해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온 정성을 다해 불드리기 백일째 되던 날 밤. 깜빡 잠이든 노파 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쯧쯧... 정성은 지극하나 순서가 틀렸으니 이 일을 어이할까.』



『순서가 틀렸다 하심은 무슨 말씀이신지 상세히 일려주옵시면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못 드는 까닭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그야 어미 된 제가 한쪽 발을 못 쓰는 텏이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두 발을 온전히 쓰도록 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오나 무슨 수로 이 늙은 것의 다리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관세음보살은 어느덧 바람처럼 사라졌다. 꿈을 꾸는 노파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싶어 관세음보살이 일려준 대로 다시 불공을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제발 이 몸의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다시 백일째 되는 날 밤. 난데없이 허공에서 우렁차고 경건한 목소리가 울려 왔다.

『내 그대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내일 망루 앞 들판에 다리를 절름거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을 터인즉 그 모양을 잘 살펴보면 다리 고치는 비법을 알게 되리라.』

필시 기도의 영힘이 나타날 것으로 믿은 노파는 그 길로 캄캄한 산길을 더듬어 내려왔다.

이튿날 저녁나절이 기울 무렵, 하얀 학 한 마리가 활활 날아와 논 가운데 앉았는데 정말 한 다리를 절름거리고 있었다. 그 학은 이상하게도 앉은 자리 근처를 뱅글뱅글 돌면서 경충경충 뛰고 있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 학은 언제 다리를 절름거렸더니 듯 두 발로 뚜벅뚜벅 걷더니 힘껏 땅을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활활 날아가 버렸다.

이 모양을 지켜보던 노파

는 하도 신기해서 급히 학이 뛰며 뱅글거리던 논둑으로 달려갔다. 논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노파는 발을 물 속에 담궈 보았다.

『아 뜨거! 아이 뜨거워! 웃지 이 물에 발을 담그면 낫는 모양이구나.』

노파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채 이를 악물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노파는 신이 나서 열심히 발을 담그었다. 그렇게 10일째 되던 날 신통하게도 노파의 절룩거리던 발은 씻은듯이 완쾌됐다.

노파는 기뻐 아들을 부둥켜안고 덩성덩실 춤을 추며 울었다.

마을에선 부처님의 가파를 받은 집이라 하여 혼인 딸이 빛치듯 했고 그 아들은 예쁘고 가문 좋은 색시를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잘살았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뜨거운 물에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온양온천이다.

『쯧쯧... 정성은 지극하나 순서가 틀렸으니 이 일을 어이할까.』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 인 사

주교: 정사 지 공
전수 지회심
☎ (054)247-7613

제 석 사

주교: 전수 법상인
☎ (053)743-9812

건 화 사

주교: 정사 법 성
전수 정일혜
☎ (054)761-2466

개 천 사

주교: 정사 경 원
전수 정법수
☎ (053)425-7910

국 광 사

주교: 정사 우 승
전수 묘설계
☎ (054)772-8776

단 음 사

주교: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333-0526

선 립 사

주교: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수 계 사

주교: 전수 안주화
☎ (054)745-5207

승 천 사

기로스승 원 봉
☎ (054)746-7434

진언 공덕 가득하시길!

대구 · 경북교구 신정회

대구 · 경북교구 일동

▶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마음도 잘 모르는 데 어찌 남의 마음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보다는 불신(不信)의 끌이 훨씬 깊은 이 세상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기에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진실된 마음 가져야 합니다. 내가 거짓되면 상대도 거짓되고, 내가 진실하면 상대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 이 마음이 몸에 이끌려서는 안됩니다. 마음은 육체를

제어하고 뛰어 넘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되고 구속이 되어서 안됩니다. 이 몸은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얻는 법. 사람의 마음은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진실된 마음을 썩트리는 훈련

▶ 진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숨김없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아무런 티끌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끼어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하며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수행은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훈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훈련'이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회초리를 들고, 다그치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체험해야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마음과 몸[물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몸의 연속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느낌, 생각, 말, 행동에 의해 원인과 결과가 되고, 이로인해

생활속의 밀교

모든 것이 일어나고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이 존재하여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또는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영원 불변의 실체 또한 없습니다.

▶ 이 마음이 몸에 이끌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수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요' 이거나 자신이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일한 방법은 자신의 안을 들어다 보고, 나타나는 불안, 걱정, 성급함, 고통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불안, 걱정, 성급함 등을 저절로 멀리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 났다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수행이고, 인내입니다.

▶ 마음의 수행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수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요' 이거나 자신이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보다 선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거기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친절함이 마치 부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나가고, 다른

려나가는 마음 가운데서 지혜와 진실된 마음은 짜르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진실된 마음의 짜이 움트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합시다.

〈법경//통리원 교정부장/법장 원 연구원〉

도 한다.

새해불공은 정월 첫째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일요일에 마친다. 이 기간에는 다른 때의 불공과는 달리 특별히 불공에만 전념한다.

교도들 가운데는 사원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 종 새벽·오전·오후·저녁시간으로 나누어 많게는 365 회나 108회 등 개인의 서원과 정진여행에 따라 횟수를 정해놓고 불공한다. 형편에 따라 새벽시간을 이용하거나 오후 또는 저녁시간을 이용해 절에 나와 불공하기

게 된다.

불공을 마친 스승과 교도들은 다시 절에 나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7시간 동안 철야정진불공을 한다. 이를 칠정진(七精進)이라 한다. 칠정진에 들어갈 때는 21·108의궤를 항마염송하고 바로 개인정진에 들어간다.

칠정진은 일곱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정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근기와 생리현상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나눠 행하여도 된다. 7정진을 마치면 새해불공이 끝나게 된다.

새해 불공

향불공에는 개인의 서원사항을 걸봉투에 적고 희사금을 넣어 스승님께 드린다. 회향불공은 공식 불공과 동참불공을 마치고 행하

증지문예

새해처럼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은
가장 기쁘게 보이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마치 새해가 떠오르듯
해맑게 웃는 것이다

슬픈 기억 잊게 해주는 것은
아픈 기억 잊게 해주는 것은
고통스런 기억 잊게 해주는 것은

마치 새해가 떠오르듯
해맑게 웃는 것이다

새해가 떠오르듯
해맑게 웃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상업
동해중 2학년 8반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일연 저 | 나무물고기 / 정가 8,500원



짧고 간결하
지만 삶의 지혜
와 진리를 담고
있는 여러 일화
들을 엮어 놓은
책으로, 재미있
는 일화를 소개
하고 그와 관련
된 삶의 태도
및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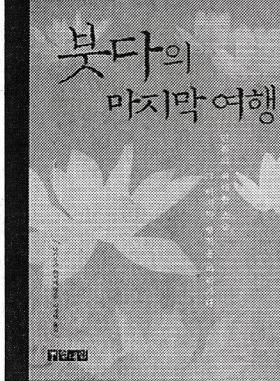
있도록 간단하게 덧붙인 글을 제공하고 있다.
재미있고 쉽게 읽으면서도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행간의 깊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 천천히 행간을 따라 가다 보면 삶의 지혜
를 찾을 수 있고, 현명한 처세술도 얻을 수
있다. 서둘러 읽으면 그저 그런 책이 된다.
책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책은 제대로 읽은 것이 중요하다. 책을 제
대로 읽는다는 것은 책으로 자신의 삶을 반
주해 보고, 희망을 찾는 행위이다.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기
를 간절히 바란다.

붓다의 마지막 여행

나카무라 하지메 저/이경덕 역 | 열대림
/ 정가 1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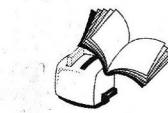


인간의 운
명은 무엇이
고, 죽음은 왜
찾아오는지,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
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
찰, 그리고 한
줄기 빛과 같

은 붓다의 지혜는 불교도뿐 아니라 모든 사
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 책을 통해 우
리는 또한 전설이나 신화 속의 봇다가 아니
라 인간적인 봇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역시 고통
과 번뇌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살다간 우리
곁의 성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봇다는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해
탈함으로써 후세인들에게 큰 모범이 된 사람
일 뿐이다.

인생이라는 무상한 바다에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인류에게 참 지혜를 밝혀준 고마운
사람 고마마 봇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모
든 것이 정보와 속도로 평가되는 현대사회에
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불성(佛性)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안의 불성을
발견하고 깨달아 마음을 다스리고 영원으로
가는 지혜를 발견하는 데 이 책은 좋은 길잡
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붓다의 '마지막 모습(涅槃)'을 다른 책은
여러 언어로 전해지는데, 이 책은 팔리어로
전해지는 경전을 일본의 저명한 종교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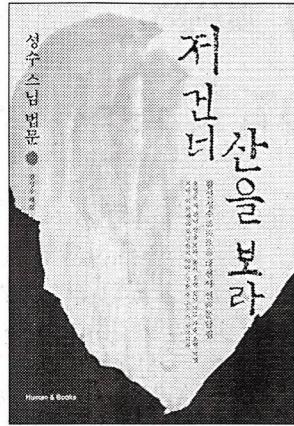


이달의 추천도서

인 나카무라 하지메가 번역한 것이다. 여기
에 산스크리트어 본과 티베트 본, 한역본, 유
부본 등을 참고하여 풍부하고 상세한 주제를
덧붙여 놓았다.

저간너산을 보라

활성성수 대선사 법문/김성우 해설 | 휴
먼앤북스 / 정가 15,000원



뒤, "법을 알기 전에 자기 부족을 살필 줄 아
는 이가 참다운 수행인이거니와 자기 병을
진단하지 못하면 천불(千佛; 천 분의 부처
님이 출세해도 불법을 알기는 어렵다"고 했
다.

성수 스님이 다시 말했다.
"화두나 들고 좌복에 앉아 세월만 보내면
뒤에 받을 몸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
가! 불법은 자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생존해 계신 스님의 선문답 해설서로는 처
음인 이 책은 성수 대선사의 삶과 선화(禪話)
를 통해 선이란 결코 생활과 자연과 동떨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의식
하는 그대로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금기시되어온 난해한 선문답
의 해설을 통해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
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
며, 특히 성수 스님의 선문답과 선화(禪話)
는 중국 선종의 언어를 담습하지 않은 한국
적인 선문답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꽃과 벌

청안 저/이민영 역 | 김영사 / 10,900원



"건강을 잊
으면 세상을
다 잊는 것과
같다."는 말
이 있다. 그
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고
운동을 계
을리하고 재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건강을 제대
로 쟁기지 않는다. 내가 산책을 나가면 만나
는 중풍환자가 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
는 그 남자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연습을
한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꾸준히 노력한
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인
사를 하니 그는 "이만한 것도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욕심 부리지 않
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건강한 삶의 한 모습이다. 몸
과 마음이 건강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돈만 많은 부자보다 더 값진 부를 누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은가? 만
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라고 부처님
은 가르쳐 주셨다. 병 없이 건강한 것이 가
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신뢰가 두터운 것이 가장 좋은
벗이요 열반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다." - 『법구경』 안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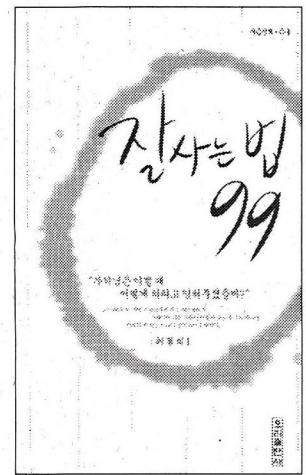
의 사찰을 건립하고 있는 청안 스님의 불교
이야기. 지난해 겨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내외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연 '불교의 이
해와 명상 수행'에 관한 열두 차례의 법문을
엮은 이 책은 삶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부처의 큰 가르침을 전한
다.

열두 편 법문을 통해 청안 스님은 날카로
운 서양의 지성을 굽복시킨 불교의 핵심 사
상을 현실감 있는 비유와 특유의 명쾌한 표
현법으로 쉽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한편 한
편의 법문을 직접 듣는 것처럼 책을 읽어나
가면 '나는 무엇인지, 고통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왜 명상
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나를 깨달아 고
통받는 존재를 도울 수 있는지를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인생의 길에서 나침반을 잊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청안 스님의 법문은 그처럼 향기로
운 끝이 되어줄 것이다. 책에는 영어원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잘사는 법

최정희 지음/우리 출판사



로 쟁기지 않는다. 내가 산책을 나가면 만나
는 중풍환자가 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
는 그 남자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연습을
한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꾸준히 노력한
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인
사를 하니 그는 "이만한 것도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욕심 부리지 않
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건강한 삶의 한 모습이다. 몸
과 마음이 건강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돈만 많은 부자보다 더 값진 부를 누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은가? 만
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라고 부처님
은 가르쳐 주셨다. 병 없이 건강한 것이 가
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신뢰가 두터운 것이 가장 좋은
벗이요 열반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다." - 『법구경』 안락품

이달의 생활요가

굵은 팔뚝, 배살에 효과적인 요가법

요가 시작 전에 정좌한 채로 복식 호흡을 합니다. 먼저 호흡
과 명상으로 몸을 일깨우고 요가 자세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에
의해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식사한 지 2~3시간 후가
좋아요. 결기부좌 혹은 반기부좌(여자는 오른발이 위로 가게 한
다)를 하고 앉아 양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무릎 위에 얹어
놓으세요. 이때 다섯 손가락의 힘을 풀고 가볍게 불이세요. 염지
는 겹지 측면에 가지런히 붙여놓아야 효과적이예요. 여자 가지
복식 호흡법 중 특히 이 자세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답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출산 후 부기 빼기, 만성 여성질환 등 여성
에게 특히 좋은 요가는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요
가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첫번째라는 것 잊지 말고, 건전
한 마음과 생활습관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꾸준히 가꾸세요."

1. 엎드려 누운 자세
에서 발끝부터 가슴까
지 바닥에 완전히 밀착
한다. 다리는 골반 너
비로 벌리고, 한쪽 다
리를 구부려 그자 모양
을 만든다. 양 손바닥
은 겨드랑이 옆으로 가
져가고, 바닥을 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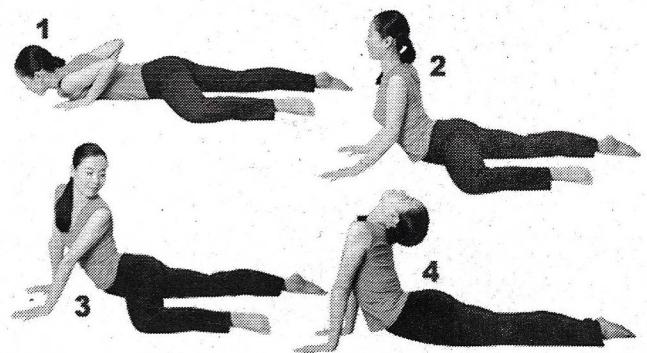
2. 숨을 크게 내쉬어
체내의 탁한 기운을 내
보낸 후 들이쉬면서 팔
꿈치가 완전히 펴질 때
까지 상체를 들어준다.
▶ 발끝부터 아래배
까지 바닥에 완전히 볼

이고 있어야 효과적. 하복부를 지나치게 들지 않는다.

3. ②의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은 구부린 발의 뒤꿈치를
본다. 하체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상체만 비틀어 뒤꿈치
를 보아야 효과가 있다. 다리를 교체해 양쪽 각 37회 반복.

4. 다시 깊은 호흡으로 체내의 탁한 기운을 내보낸 후 들이쉬
면서 상체를 최대한 젖혀 시선이 천장을 향하게 한다. 잠시 숨을
참았다가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준다. 같은 동작 3회 반복. 엎드
린 송장 자세로 마무리한다.

▶ ④의 완성 자세에서 발 뒤꿈치는 불이고 팔약근을 강하게
조인다. 양팔을 벌리거나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각사

주교: 정사 법 공

전수 공덕성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1)552-7901

덕화사

주교: 정사 대 원
전수 정인화

☎ (051)332-8903

관음사

주교: 전수 정정심

☎ (051)896-1578

단향사

주교: 전수 행원심

☎ (055)644-5375

밀행사

주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교: 전수 정원심

☎ (051)468-7164

성화사

주교: 정사 지 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실보사

주교: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2)244-7760

운천사

주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55)223-2021

일상사

기로스승: 수행월

☎ (055)352-8132

자석사

주교: 전수 혜안정

☎ (051)752-1892

화음사

주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삼밀사

주교: 정사 원 송
전수 인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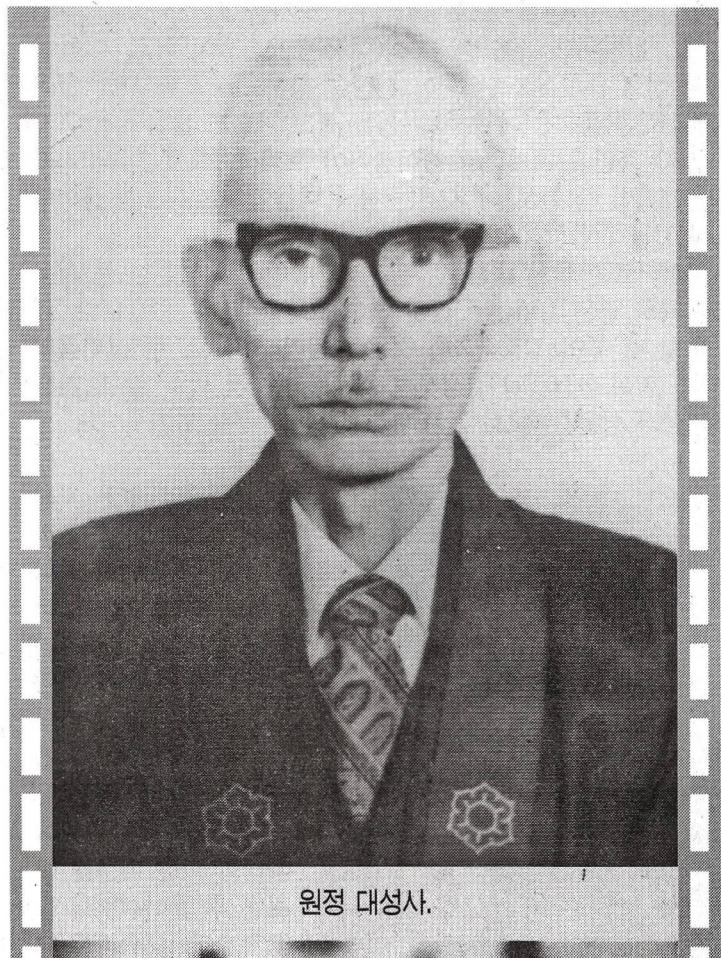
☎ (051)416-9835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탄신 100주기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꽂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을 이끄셨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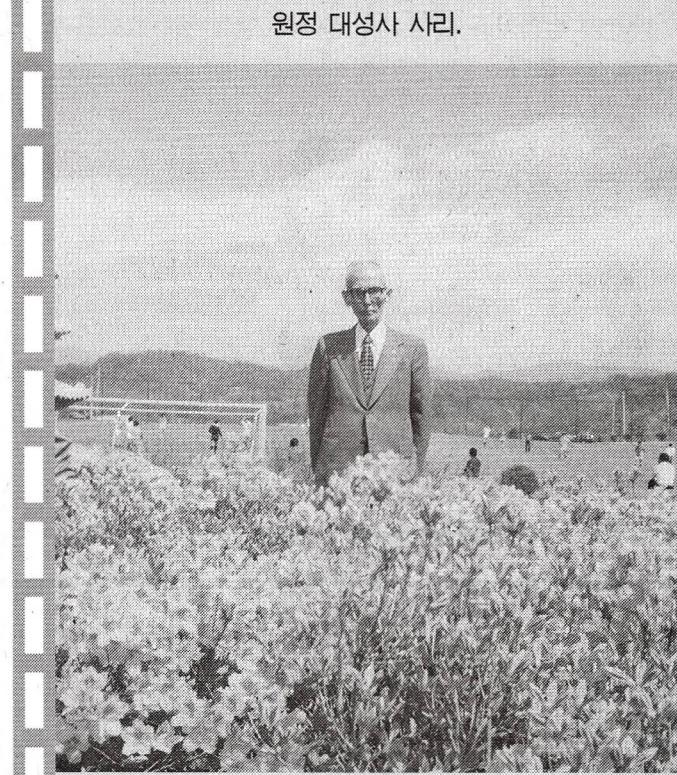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약력과 사진, 유고(遺稿) 등을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원정 대성사.



원정 대성사 사리.



봄날 어느때.



총본산 총지사 건립불사



총지사 건립 초기 모습.

◆현대한국밀교의 개척자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1907.1.29~1980.9.8)

현대한국밀교의 개척자이며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셨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 정우(禎佑)로 개명하셨다.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한 번 보고들은 것은 잊지 않으셨다고 한다.

유년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시고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이후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준제관음법 발굴 시행

6.25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회당 조사의 일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응화성전》 《총지법장》 등을 편찬하시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하셨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던 중 진각종의 협행수행체계에 오류를 발견하고 《준제관음법》을 발굴, 이의 시행을 시도했으나 회당 개조 친인척의 종교외적인 곡해와

밀교에 무지한 일부 승직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한국의 현대밀교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쳐버리시고, 이른바 '준제파동'의 와중에서 진각종을 떠나 은거하시면서 밀교의 비법으로 정진하시던 중 1972년 4월 7일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관세음보살의 몽수를 받고 교상화립에 착수하셨다.

그 해 8월 21일 법신대일여래의 가지력과 원정대성사의 영명하신 통찰력으로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밀교의 기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성사께서는 오랜 은거의 수련을 거두시고 정법홍포를 발원하셨다.

마침 성사의 행방을 찾아 우왕좌왕하던 진각종의 중진스승들과 식견 있는 제자들이 입교개종을 간청함에 따라 밀교중흥의 결심을 굳히신 성사께서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총지종의 창종 이후 원정 대성사께서는 진각종에서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시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면서 본산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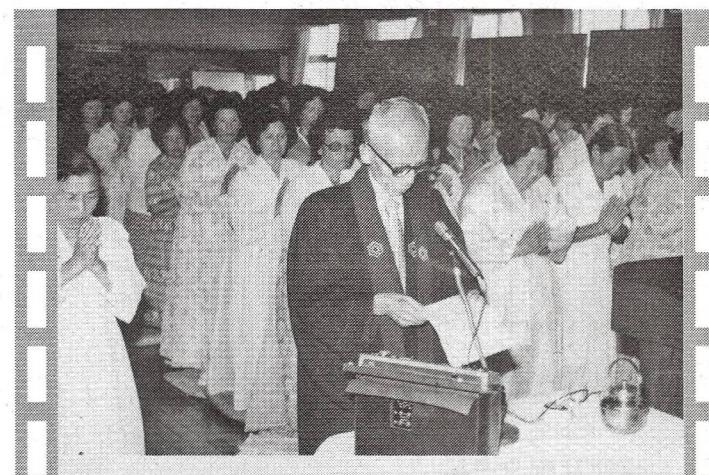
대성사께서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파 역할을 하심으로써 1980년 9월 8일 입적하실 때까지 한국 현대밀교사의 수립에 견인역할을 하셨다.

한국 밀교사 수립 견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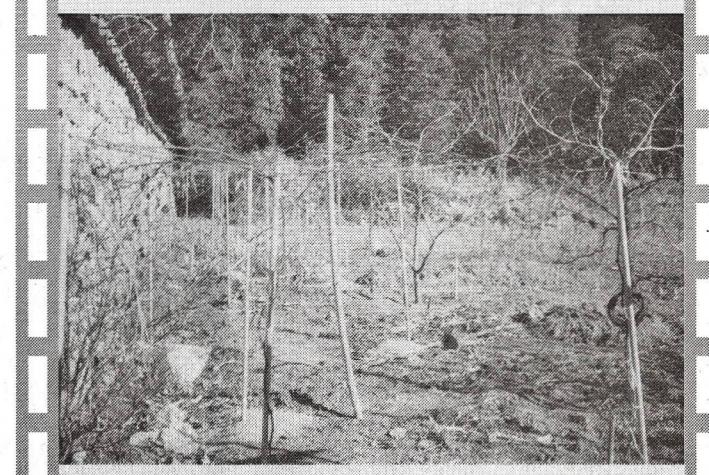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와 현대 한국밀교사의 궤적이 일치한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원정대성사의 사상은 《종조법설집》에 잘 나타나 있으며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번역하여 발간하셨으며, 이 밖에도 대장경의 핵심을 모은 《불교총전》 등을 편찬하셨다.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밀교교리에 정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 운영에 대해서도 한국불교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종단의 재단법인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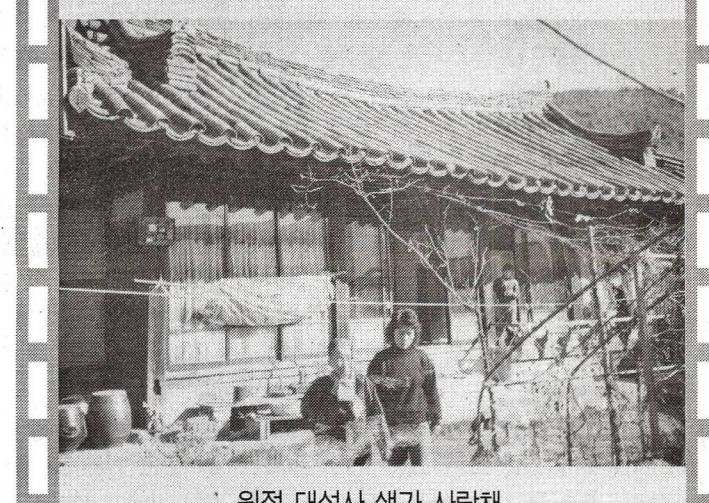
이처럼 원정대성사의 밀암국토건설과 정통밀교의 수립에 대한 대원(大願)은 총지종이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양계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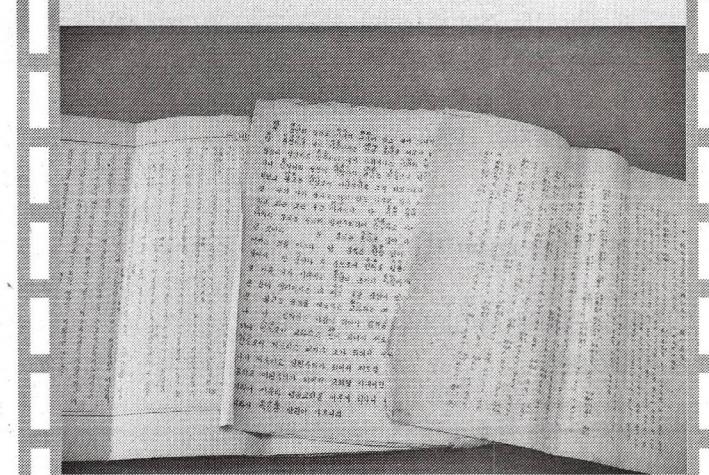
불사 의례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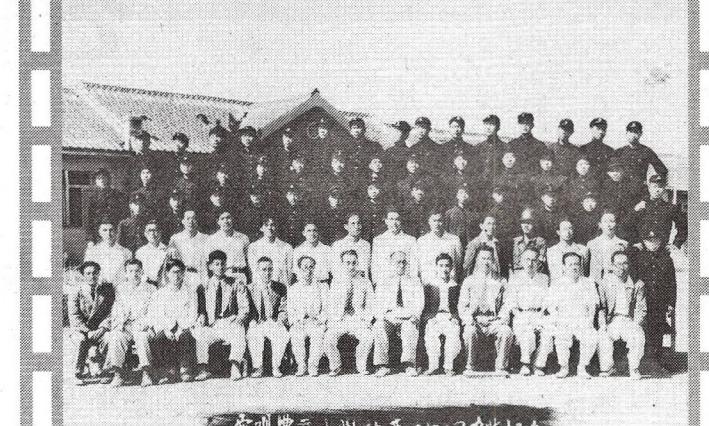
원정 대성사 생가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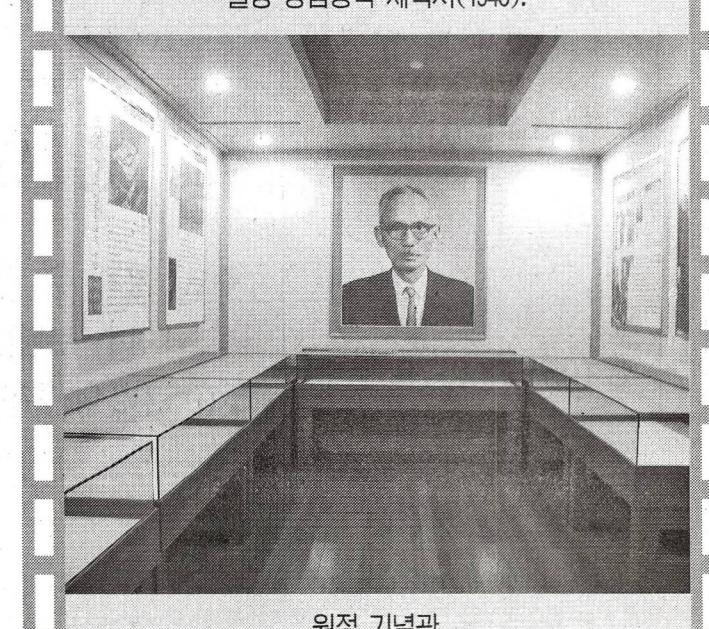
원정 대성사 생가 사랑채.



원정 대성사 유고.



밀양 농잠중학 재직시(1946).



원정 기념관.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관세음보살의 본심 '옴마니반메훔'의 공덕

대승장엄보왕경에 이르시되 관세음보살 본심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길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니라. 만일 이 주문을 염념불망하는 사람은 천재만액이 다 소멸하느니라. 대승장엄보왕경에 설함과 같이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있는 곳마다 부처와 보살을 이루며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의 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을지며,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얻으면 탐진치 삼독에 애착함이 없을 것이요 또 이 본심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닌 자도 또한 탐진치 삼독병에 물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거나 지니는 사람의 몸과 손으로 하는 바와 눈으로 보는 바의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위(位)를 얻어 영영 다시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고생을 받지 아니하리라.

삼독병에 물들지 않아

무량수 대각님이 설하시되 이 본심을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방생(放生) 한번 한 공덕과 같고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五逆罪)를 멀리하고 날마다 백여회번을 생각하면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꿈임없이 생각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을 친근하고 놀래고 두려움이 나지 아니하며 황사(橫死)에 이르지 아니하며 좋은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며 의식(衣食)이 갖추어 넘어야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나는 곳마다 관세음보살께서 자제(自在)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니 천겁(千

劫) 가운데라도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육자 본심의 공덕이 비할 데 없느니라.

백용성(白龍城) 정사가 관세음보살 본심의 공덕을 설하되 이 본심주(本心呪)의 공덕을 말하자면 허공으로 입을 삼아 가지가지 공덕을 칭찬하여도 향사(恒沙沙) 미진수(微塵數) 중의 하나 민름도 말할 수 없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 큰 불에 들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큰 불에 빠진 바 되더라도 곧 얇은 곳으로 엉을지며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파의 난에서 해탈함을 얻을지며 설사 사람이 살해를 당할 때나 또 죄가 있거나 하여 만약 수갑(手甲)·항쇄(項鎖)로 그 몸을 얹매더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다 해탈하는 은혜와 구원을 얻느니라.

심인 옴마니반메훔을 송(誦)하고 염(念)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훈련이다. 은은 희사(喜捨), 미는 계행(戒行), 니는 하심(下心), 반은 용맹(勇猛), 메는 묵념(默念), 흠은 지혜(智慧)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며 잊지 않고 묵념하면 천재만액(千災萬厄)이 소멸하느니라.

이 심인(心印)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라 만법(萬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사만리(萬事萬理)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자 심인

은 뺨미와 같아서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죽을 목숨 한번 살려 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를 면하며 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벗속에 있는 벌레 등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나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 외도의 사술이 아니라.

보살심 증득이 본심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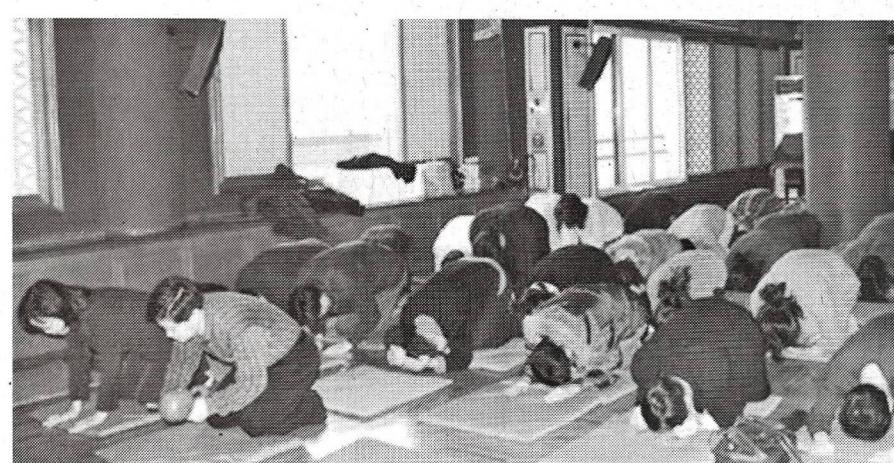
좋은 결과가 오는 유행(六行)은 제일 지혜(智慧), 제이 묵념(默念), 제삼 용맹(勇猛), 제사 하심(下心), 제오 계행(戒行), 제육 희사(喜捨)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다.

심인불교(心印佛教)에서 실행(實行)하고 오는 것은 불경(佛經)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인이 여섯가지 실천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미행동을 고치고, 희사로써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되느니라.



현대불교신문 폐간 위기 일단 6개월간 유보 하기로



◇현대불교 직원들이 한마음선원에서 108침회를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이사장 혜원스님)는 지난 12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해 범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 청산 업무를 위임 받은 모 회계법인이 현대불교신문사를 방문하는 등 청산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작자'와 '노조가 신문사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7일 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 결정은 교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은 큰 허탈함과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불교신문의 한 기자는 "신문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한마음선원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직원들은 110여 명이었던 직원 수가 40여 명으로 줄어드는 구조조정을 감수했고 더불어 노조에서는 회사 발전방안을 마련해 회사측에 제시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이사회 결정에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이어 "신문사 경영 위기는 신문사를 운영해왔던 전 사장의 부실경영과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사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끌려왔던 직원들 모두에게 있다"며 "하지만 일방적인 폐간은 이런 책임을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식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2월 14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이 축적해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공공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이기도 하다"며 "폐간은 곧 법인체제를 의미하며 그것은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이타회'도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불교발전의 지대한 공이 있는 교계 언론사의 폐간을 접하고 충격과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발로 뛰는 기자들과 관계자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며 교계 언론사 폐간을 막고 회생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불교〉의 폐간을 6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등 주주 13명이 참석한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현대불교신문 폐간을 6개월간 유보하는 대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신문사 운영을 맡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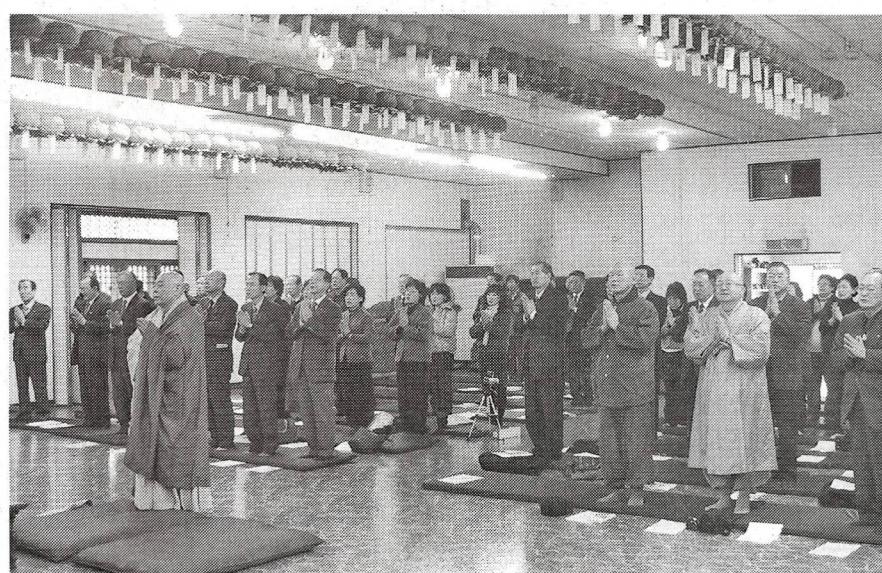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스님)는 12월 8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제2회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시상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의 불서 10'으로 선정된 〈길 위의 삼국유사〉〈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

엄〉〈불교, 이웃종교로 읽다〉〈붓다, 나를 흔들다〉〈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생명과학과 선〉〈소 찾는 아이〉〈인간학불교〉〈인도불교사 1.2〉〈절수행입문〉등의 저자와 출판사 대표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대한민국지끼기 불교도총연합회

출범이후 첫 송년법회 봉행



대한민국지끼기 불교도총연합회는 지난 12월 21일 서울 남산 종정사 대

법당에서 금강선원 혜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출범이후 첫 송년대법회를 봉

행했다.

혜거스님은 법문에서 "구주(九疇)는 3천년전 중국에 있었던 아홉가지 대법인데, 이 중 만물의 순환이치인 도행(五行)을 잘 파악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혜거스님은 이와 함께 수행사덕(修行四德)을 열거하며, 신구의 삼업을 다스릴 때 일정기한을 정해 노력하면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지끼기 불교도총연합회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전 윤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인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단결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지끼기 불교도총연합회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예비역 군장성불자가 주축이 되어 창립법회를 가졌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남산 한옥마을 옆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깔끔하게 매니큐어를 칠하려면

오른손잡이는 오른 손에, 왼손잡이는 왼 손에 매니큐어를 칠하기 어렵다.

이 때는 주로 사용하는 쪽에 애구 공을 쥐고 손목을 테이블 위에 댄 다음 칠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끝이 안정되어 깔끔하게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다.

▶깜짝 감기 응급 처치법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축축한 양배추의 바깥 잎을 머리에 써운다. 양배추가 바짝 마를 때까지 써워 두면 기화열이 발생하여 열이 내려간다. 머리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효과적인 응급 처치법이다. 사정이 가능하면 병원에 가는 것을 잊지 말 것.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반죽하기

햄버거나 만두 속을 만들 때, 채소를 넣기 전에 소금 물을 약간 넣어 반죽하면 소금이 고기의 맛 있는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주어 재료의 맛이 한층 살아난다.

▶고기를 동일한 두께로 자르려면

고기를 동일한 두께로 썰고 싶을 때는 우유 팩을 사용하기 쉬운 크기로 잘라 고기를 싸서 조금씩 비켜가며 자르면 된다. 우유 팩은 방수 가공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고기의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위생적이다.

▶감자 쌈이 안나게 보관하려면

감자를 쌈이 나지 않게 보관하려면 감자와 사과를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배출되는 에스탈 가스가 감자의 발아를 늦추어 주기 때문에 구입한 감자를 한 달 정도는 쌈이 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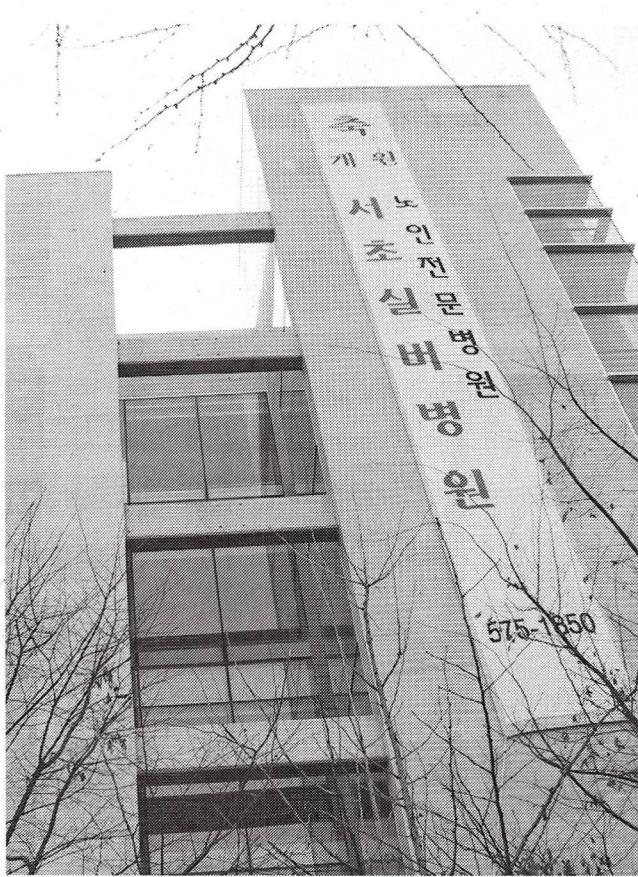
▶생선 비린내 제거하기

손에 생선 비린내가 배었을 때 원두 커피를 이용하여 손을 닦으면 천연탈취제 역할을 한다. 생선을 손질한 도마도 세제로 씻은 뒤 커피 찌꺼기로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 된다.

▶프라이팬의 기름 때 제거하기

기름 때가 묻은 프라이팬과 냄비는 쓰고 남은 티백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인다. 세척이 끝나면 티백은 그대로 버리면 되므로 간편하다.

서초실버의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
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통사찰 문화탐방

고요로 돌아간 자리, 적멸보궁-함백산 정암사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부리나케 달려 겨우 출발시각에 맞추어서 도착했다.

오랜만에 도반들과 사찰탐방 할 시간이 주어 진다는 느낌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일년 동안 함께 해 온 도반들과의 시간도 하나 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며칠전에 많은 눈이 내린데다가 더욱 강원도라는 지역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날씨가 우리들의 걱정을 씻어내었다.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번갈아 타면서 영월, 태백 가는 도로에 몸을 실어 정선에 접어 들 즈음에는 정선 아리랑이 떠올랐다.

정암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다.

그래서 출발부터 가슴 설레이거나 보다.

또한 정암사는 경남 양산에 있는 영축산 통도사,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영월 사자산 법흥사,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과 함께 자장율사가 모셔온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적멸(寂滅)이란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곳, 본래의 마음자리인 고요의 상태로 돌아감을 말한다고 한다. 법신인 부처의 세계에서 육신으로 인한 마지막 장애까지 출출 털어 버리고 영원한 진리 그 자체로 돌아가면 곧 적멸인 것이다. 적멸보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빼에서 나온 사리를 모

시는 보배로운 궁전의 의미라고 한다.

불교에 입교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제야 적멸보궁에 대하여 알았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 마저 들게 하였다.

적멸보궁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기에 별도의 불상을 두지 않는다.

이는 일견으로 밀교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라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다.

정암사 적멸보궁에도 역시 불상이 없다. 다만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상징하는 방석이 수미단 위에 놓여 있을 뿐이다. 사리가 모셔진 곳이 바로 빈 방석 너머 장방형으로 난 창문 밖에 서 있는 수마노탑에 봉안되어 있다. 이 수마노탑을 보궁안에서 직접 바라볼 수는 없고, 탑을 제대로 친견하려면 적멸보궁 뒤편 금경사를 따라 100m쯤 올라가야 한다.

눈 덮인 일주문을 들어설 때면, 거창하게 해탈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슬데없는 아집은 미련 없이 실어 보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왼쪽으로 기다란 건물이 있고 정면 오른쪽으로 범종각이 보인다. 범종각을 지나 극락교를 건너게 되면 정암사의 주전이라 할 수 있는 '적멸궁'으로 들어서게 된다.

적멸궁 앞은 산그늘 때문인지 하얀 눈이 그대로 소복이 쌓여 청정한 마음이 절로 생겨났다. 잠시동안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동심의 세계도 느껴 보았고 눈 한 줌 뭉쳐서 보살님께 장난도 쳐보았다.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주어질까 하는



정암사 적멸궁.

생각도 해보았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게 되면 정면에 관음전이 있고, 그 뒤쪽 언덕으로 휘굽어진 소나무와 함께 삼성각과 자장각이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정암사의 사리탑은 극락교 위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 비탈진 언덕길을 6~7분쯤 올라야 한다. 부처님이 남기신 흔적을 찾아가는 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눈이 내린 탓으로 미끄러움에 조바심이 났다. 물컹한 숲을 지나 자마자 시작되는 경경사의 오르막길은 조금만 여유 있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편안하게 오를 수 있게 되어있다. 오름길 내내 길을 만든 이의 정성이 눈에 띄도록 단정한 돌들이 가지런하게 놓여져 고궁의 돌담길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길이다.

수마노탑은 모전석재(模搆石材)를 이용한 7층탑으로 높이는 9m 가량이다. 탑신을 구성하고 있는 석재는 수성암질의 석회암으로 판석의 길이는 30~40cm, 두께 5~7cm 정도다. 상륜부는 화강암으로 조성한 노반(露盤)위에 모전석재를 올리고 다시 그 위에 청동제 상륜을 설치한 탑이다. 또한 수마노탑은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마노석으로 만든 탑이라 하여 마노탑이라고 하는데, 마노 앞의 수(水)자는 자장의 불심에 감화된 서해 용왕이 마노석을 동해 울진포를 지나 이 곳까지 무사히 실어주었기에 '물길을 따라온 물'이라 하여 덧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수마노탑이 칠보 중의 하나인 마노석으로 되어 있다 하니 엄청 화려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다. 백색을 띤 수수한 색깔에 은은한 힘이 담겨있는 정겨움이 가슴에 와닿는다.

수마노탑은 자장율사가 전란과 천재가 없는 태평성을 기원하며 불사리를 모시며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의 자리에 탑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설화가 있다.

자장율사가 정암사 근처에 불사리를 세우려 하였으나 세울 때마다 계속 쓰러졌다고 한다. 이에 불사가 간절히 기도하니 동지선달 흑한 속에도 하룻밤 사이에 험세 줄기가 눈 위로 뻗다 멈추어 서니 그곳이 지금의 수마노탑, 적멸보궁, 사찰터라고 한다.

그런 연유로 정암사를 한때는 갈래사(葛來寺=칠봉구에서 온 절)라 하였다고 한다.

본래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석가세존의 사리, 치아, 염주, 불장주(佛掌珠), 페엄경(貝葉經) 등 석가의 신물(信物)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 신물들은 '세 줄기의 험아 서린 곳'에 나누어 각각 금탑과 은탑 그리고 수마노탑에 모셨다고 한다.

자장율사는 후세 중생들의 탐욕을 우려해 불심이 없는 중생들이 육안으로는 금탑과 은탑을 볼 수 없게 신통을 부려 현재 금탑과 은탑은 그 행방이 묘연하다 한다. 정암사 북쪽으로 금대봉이 있고 남쪽으로 은대봉이 있으니 그간의 어디에 금탑과 은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정암사는 석가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기도 하지만 자장을사가 일생을 마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숲과 골짜기는 해를 가리고 멀리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기 짝이 없다' 하여 정암사는 신라의 큰스님이었던 자장을사(慈藏律師)가 645년 선덕여왕 14년에 계곡 깊고 산이 높아 산세 웅장한 태백산 서쪽 기슭인 현재의 터에 창건하였다 한다.

삼국유사 제4권 자장정율(慈藏定律)조에는 자장을사가 선덕여왕 14년(645), 이곳에 석남원을 세웠고, 그 석남원이 지금의 정암사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자장을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막힌 설화가 실려 있지만 언제 무엇 때문에 정암사로 바뀌었는지 그 밖의 세세한 내력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요하고 정겨운 정암사를 찾아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 왔다.

때마침 점심 공양시간이라 오랜만에 사찰에서 공양도 하였고, 모퉁이 한켠에 있는 점경원 장독대와 청국장 막에 감사의 마음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비록 바루공양은 아니었지만 정암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산새들과 전나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길에서 모든 아집을 버릴수 있길 바래 보았다.

탄광촌과 정선 아리랑이 함께 어우러진 정암사의 담사는 불자라면 한번쯤은 꼭 찾아 볼만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최혜선(총지사 교도)



정암사 수마노탑.

정암사는 석가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기도 하지만 자장을사가 일생을 마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숲과 골짜기는 해를 가리고 멀리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기 짝이 없다' 하여 정암사는 신라의 큰스님이었던 자장을사(慈藏律師)가 645년 선덕여왕 14년에 계곡 깊고 산이 높아 산세 웅장한 태백산 서쪽 기슭인 현재의 터에 창건하였다 한다.

삼국유사 제4권 자장정율(慈藏定律)조에는 자장을사가 선덕여왕 14년(645), 이곳에 석남원을 세웠고, 그 석남원이 지금의 정암사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자장을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막힌 설화가 실려 있지만 언제 무엇 때문에 정암사로 바뀌었는지 그 밖의 세세한 내력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요하고 정겨운 정암사를 찾아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 왔다.

때마침 점심 공양시간이라 오랜만에 사찰에서 공양도 하였고, 모퉁이 한켠에 있는 점경원 장독대와 청국장 막에 감사의 마음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비록 바루공양은 아니었지만 정암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산새들과 전나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길에서 모든 아집을 버릴수 있길 바래 보았다.

탄광촌과 정선 아리랑이 함께 어우러진 정암사의 담사는 불자라면 한번쯤은 꼭 찾아 볼만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최혜선(총지사 교도)

이달의 사찰음식

▶ 연근조림



재료

연근 200g, 식초 1큰술, 물 3컵, 진간장 2큰술, 물엿 2큰술, 미른고추 2개, 생강 2쪽

만드는 법

①연근은 껍질에 상처가 없이 매끈하면서 통통한 것으로 선택하여 흙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다.

②2-3mm 두께로 썰어서 끓는 물에 쇠초를 넣고 살짝 삶아낸다.

③물, 진간장, 물엿, 미른고추, 생강은 편으로 2-3쪽 썰어 넣고 끓여 조림간장을 만든 다음, 고추와 생강을 건져낸 후 준비해 둔 연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졸인다.

▶ 녹차수제비



재료

밀가루 2컵, 말차 2큰술, 감자 1개, 애호박 1/2개, 다시마 1개(10×10cm), 진표고버섯 5개, 무 1/4개, 집간장 1큰술, 소금 1 1/2큰술

만드는 법

①밀가루와 말차를 함께 섞어 채로 쳐서 내린 후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오래 치대어 반죽을 한 다음 젓은 행주로 쌈둔다.

②냄비에 물을 넉넉히 끓고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와 무, 표고버섯을 넣는다. 끓으면 약한 불에 서서히 우려내어 건더기는 건져 식혀두고 다시물에 집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③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도톰하게 썰어두고 애호박도 이등분하여 반달 모양으로 썰어 준비한 후 식혀둔 다시마와 버섯도 썰어 준비해둔다.

④다시국물이 끓으면 감자를 넣고 반죽해둔 밀가루를 한 입 크기로 얇게 펴어 넣는다. 한소끔 끓으면 나머지 고명을 넣는다.

※ 특기사항

녹차수제비는 건더기를 끓는 물에 따로 익혀내서 시원하게 식힌 다시물을 넣어 먹으면 별미다.



다 향 茶香의 향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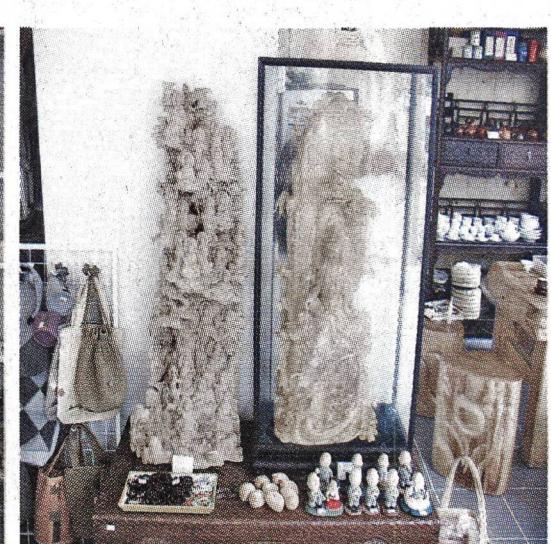
멀리서 나를 꽂이되게 하는 이여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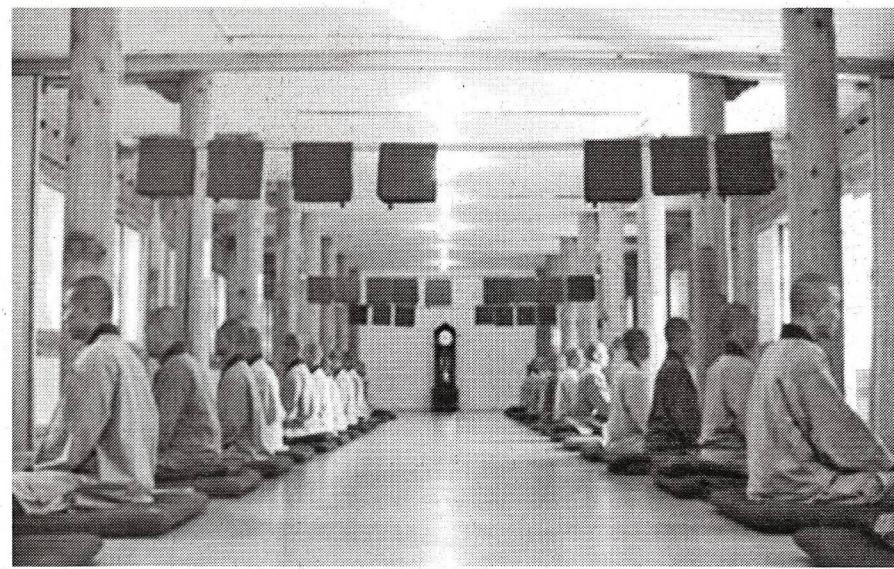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 작설), 보이차, 오룡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총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동안거 결제일 맞아 정진 들어가



◇수행 납자들이 안거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선원과 사찰에서 일제히 정진 수행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2천2백여명의 수좌들이 수행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태고종도 태고종립 선암사 칠전선원등지에서 안거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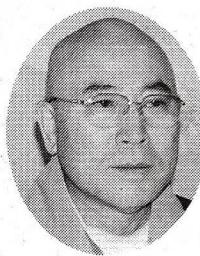
이에앞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수행납자들은 결제를 통해 추위도 더위도 없는, 생사가 이르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라”고 격려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도 “을 동안거에는 대중이 심기일전 분심을 내어 가입층 정진해 각자의 본분사를 반드시 성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지종은 1월 8일부터 7일간 새해 월초불공을, 2월 19일부터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정진에 들어간다.

BBS 4대 이사장에

종하스님 선임



종하 스님이 구립 12월 13일 마포 흘리데이인 서울에서 열린 제60차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만장 일치로 제4대 이

사장에 선임됐다. 종하 스님의 임기는 1월에 시작되며 4년간이다.

종하 스님은 1958년 해인사로 출가해 59년 고봉 스님, 6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종회의원을 9 차례, 종회의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불교방송국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서울 남

현동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다.

만사와 세상

별이 아름다운 이유

“남 걱정 말고 너나 잘해”

우리는 지금 다종교사회에 살다보니 한 집안 식구끼리도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간에 종교가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가정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종교가 다른 경우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교가 다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도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다보니, 말로는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종교를 헐뜯고 비하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종교마다 자신의 종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어떤 종교가 더 훌륭한 종교이냐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종교를 더 훌륭하니까 내 종교를 믿으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칫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라면 그 말은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다종교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다음의 간단한 사실을 실천하면 됩니다. 말로 불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불자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종교를 평가

려 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불교를 실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으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가르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의 종교를 들먹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옛날 노스님들은 어쩌다 젊은 스님들이 모여 남의 말을 들어놓기라도 하면 으레 ‘남 걱정 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너나 잘하라’는 말씀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계를 잘 지키더라도 남이 파계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지계는 될지 언정 지계바라일은 못된다고 한 것도 ‘너나 잘하라’는 말씀과 달것이 없습니다. 지금스님은 ‘자기는 고기먹지 않는다고 남이 먹는 것을 빼딱한 눈으로 훑어본다’고 하였는데, 자기나 먹지 않으면 그만이지 남이 먹는 것을

2010년까지 금정구 남산동 일대 10만 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여해 세계 최고의 명상 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안도스님은 인사말에서 “아름답고 세계적인 도시 부산에 정신문화유산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현관식에 이어 민학회의 국악공연과 리셉션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현관식에 앞서 사무총장 안도스님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세계 선문화타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단협 2007년 사업계획 확정

예산 6억1천600만원 편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스님)가 200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지난 1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예산안과 사업을 심의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2007년도 예산은 올해 보다 800만원이 삭감된 6억1천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행사로는 △신년하례법회 △제3회 3·1절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제8회 8·15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과 공정언론위원회 및 공명선거제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제10차 한중일불

교우호교류대회와 제1차 한국불교문화체험 일본대표단 초청 등 국제행사도 펼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부회장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스님을, 상임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현운스님, 이사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종단협 사무국장에는 헝명스님(쌍계사 주지)이 임명됐다. 그리고 최근 정치 지도자들의 종교편향 우려가 높았는데 인식을 같아하고 빠른 시일에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이사 33명 가운데 24(위임 3명)명이 참석했다.

못마땅하다는 듯이 훑겨보는 것 역시 성숙한 모습은 아니겠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잘못을 들추면 마치 자기가 잘나 봐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이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남의 험담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버릇을 고쳐나가는 것이 불자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로지 남이 백 가지 선을 말할지언정 남이 한 가지 악을 말해서는 안 된다’([但得說人百善 不得說人一惡]고 한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짐승들도 남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람으로서 더구나 선업을 쌓아 공덕 짓기를 열원하는 불자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훨씬지 않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처럼 돋보이지 않을까요?

성열 스님/강남포교원장

신행체험 36

참회와 실천의 삶 속에서



제애덕보살

(종지사 교도)

되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중에는 소리내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종조님이 꿈에 나오셔서 하신 법문을 깨달았습니다. 계으뜸에 떨어진 저를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하시고,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서울 벽룡사에 다닐 때 버스에서 아끼던 염주를 두고 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절에 나오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염주를 잃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원당에서 부처님께 염주를 찾게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곤 버스 운적석 걸이에 걸려 있기를 빌었습니다. 절에 다니기 얼마 안돼 참회의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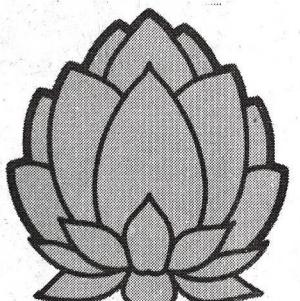
높은 때같은 입장 깨닫고 통곡…

원망심이 다 없어지자 수년 동안 시달렸던 원인 묘를 두통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후부터 더욱 열심히 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총지종 수행법에 대해서 어떤 법문이 닥칠 때 진언 수행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과 함께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인욕과 하심으로 진애심과 원망심을 없애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용맹정진하게 되면 상구보리와 하화증생의 길이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종단에 바라는 점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포교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고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성학교에 대한 지원과 젊은이들이 절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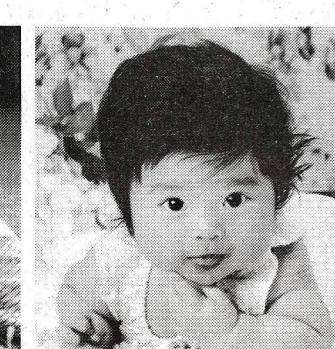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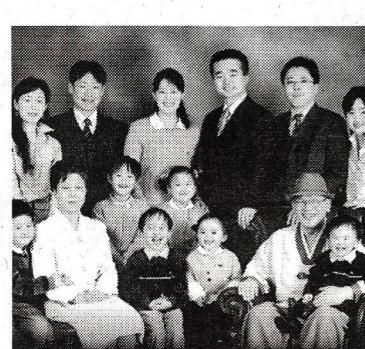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완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 031) 915-3856 정진숙 실장 (승우섭 보살 삼녀)

홈페이지 : bomstudio.com



총지도량에서 불교의 생활학, 생활의 불교학를...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 삼밀수행 도량

현대밀교의 선구자-불교총지종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教)!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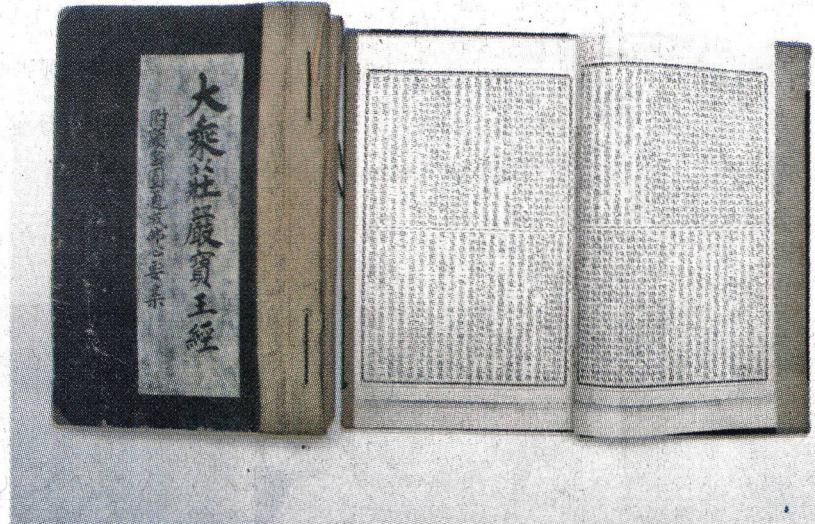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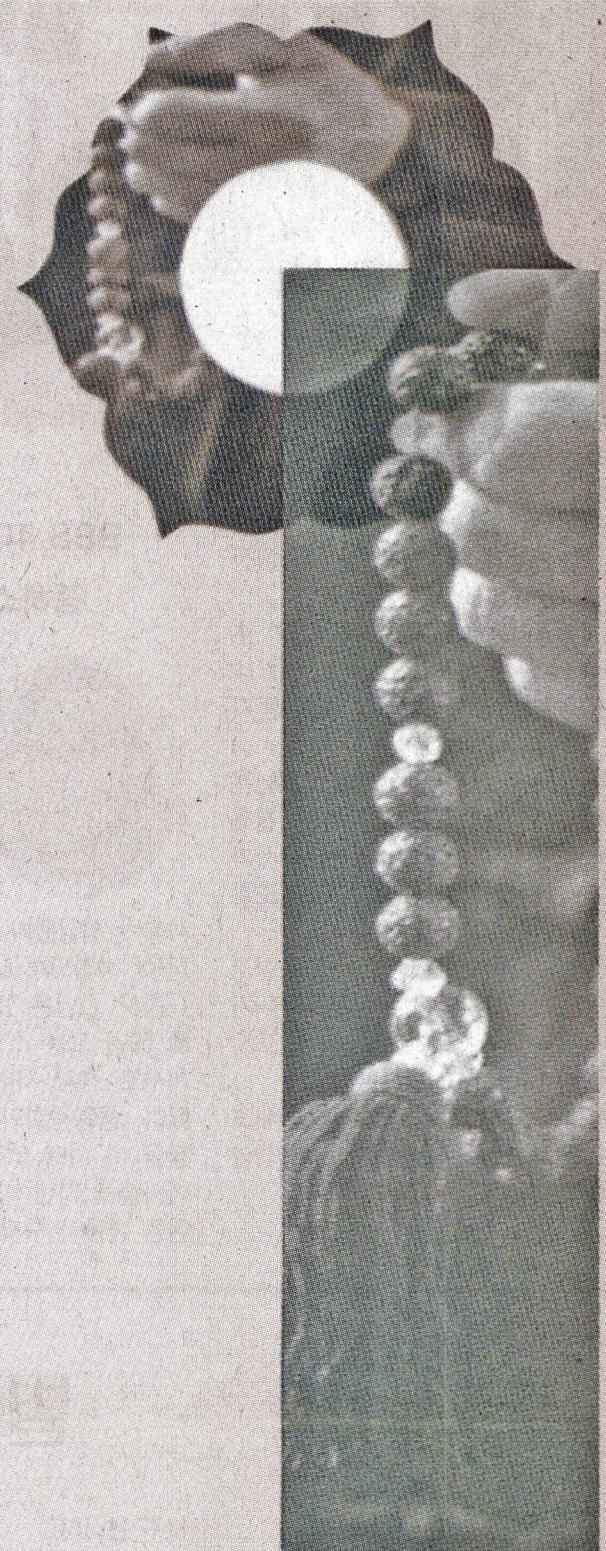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증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지종보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